

# 멀티미디어 시대의 대학

이 윤 희

인천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21 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날 전 세계는 정보화와 세계화로 압축되는 새로운 시대 변혁의 물결 속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변혁의 물결은 18세기 산업혁명에 의해 이루어졌던 충격적인 사회 변동 이상으로 현 사회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여건들을 변모시키고 있으며,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다가오는 21 세기를 인류 역사상 일대 문명사적 전환기로 전망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서 미래 서적을 찾고 있다. 굳이 시내의 대형서점을 가지 않더라도 동네의 작은 책방에서도 우리는 쉽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있는 각종 미래 관련 서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또는 특별히 이러한 미래 관련 서적을 사서 읽지는 않는다 하

더라도,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문의 정보기술 관련 기사들을 대충 훑어 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 문화적 여건들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때로는 현 인류가 이루어내는 놀라운 기술 혁신에 감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만이 이 거센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낙오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젖기도 한다.

소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일컬어지던 대학 캠퍼스도 기업이나 정부 등 여타의 사회적 영역들 못지않게 이미 이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시대적 대변혁의 물결 한 가운데 있음을 종종 실감하게 된다. 대학의 주 구성원인 20대의 대학생들이야 말로 어느 연령층보다도 시대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적응하는 집단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변화 추세는 사실 당연한 것이기도 모른다.

필자가 지난 학기를 보내면서 접했던 시대적 변화 물결의 구체적인 경험담 몇 가지를 들어 보겠다. 우선, 학기 초에 겪은 일이다. 학생들에게 수업 과제물로 제출할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니 몇몇 학생들이 대뜸 필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물어보는 것이다. 보고서를 PC 통신을 통해 필자의 컴퓨터로 직접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아직 PC 통신을 사용하고 있지 않던 필자로서는 무척 당혹스런 질문이었고, 결국은 그 질문을 받은 며칠 뒤 서둘러서 PC 통신을 개설할 수밖에 없었다.

두번째는 학기 중간에 일어난 일이다. 필자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는 학생들이 3~4명씩 조를 짜서 각 조별로 과제를 발표하는 수업이 있다. 지난 학기까지만 하더라도 기껏해야 OHP를 동원하거나 아니면 대자보용 큰 종이에 매직펜으로도표를 그려서 발표를 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그 중 몇몇 팀이 발표하는 내용을 비디오로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의 남다른 노력에 한편으로는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고작 칠판에 몇 자 적어가면서 진부한 수업을 해 왔던 필자의 구태의연함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이번 학기에 조금 색다른 시도를 해 보았던 또 하나의 수업 이야기다. 필자가 담당한 과목 중에는 매주 사회과학 분야의 고전을 한 권씩 읽고 독후감을 써내도록 하는 과목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입식·암기식 수업에 매달리느라 꼭 읽어야 할 고전 한 권 제대로 읽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너무나 딱해서 한 3년 전부터 그런 과목을 고안해서 매년 개설해 왔었다. 그런데 매주 고전을 한 권씩 읽히다보니 학생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제대로 소화도 못해내는 것 같아서 이번 학기에는 그 과목을 큰 마음 먹고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았다. 즉, 매주 책을 한 권씩 읽히는 대신에 사회적 주제를 담은 영화를 한 편씩 선정해서 함께 관람하고 감상문을 써내도록 한 것이다. 그랬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책을 읽히던 때와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것이 아닌가! 영화에 담긴 사회적 주제를 소화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책읽기를 통해 보여주던 것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통찰적이었다. 그리고 수업에 임하는 태도 역시 훨씬 더 열성적이고 진지했다. 학기말 시험에서도 이런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즉 책읽기 수업 때와 비슷한 문제들을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답안은 훨씬 더 진지한 성찰을 담고 있었다.

지금까지 다소 장황하게 열거한 위의 몇 가지 경험담은 전체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대학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변화 물결들 중 극히 일부분이 표출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 모두가 반드시 다 좋고 찬양할 만하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물론 아니다. 다만 필자가 직접 겪은 이런 사소한 사례들은 대학도 바야흐로 활자매체 중

심의 단일 미디어 시대에서 영상매체 중심의 복합 미디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 준다.

현재 우리 주위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텔레비전, 컴퓨터 스크린, 전자우편, 위성통신, 데이터 디스플레이, 화상회의 등등 전 세계에 걸친 기술 환경의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회 문화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21세기에 본격적으로 꽃피울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서곡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화상과 텍스트로 이루어진 표준화된 디지털 언어가 통용되는 시대, 거미줄처럼 연결된 정보 네트워크의 거대한 자료 묶음을 서로 이어주는 멀티미디어 시대는 컴퓨터와 통신, 오락과 교육 사업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있으며, 이런 기술 변화는 소위 콜린 채프만의 신조어인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산업을 이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이 담당해왔던 종래의 사회적 위치나 기능은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될 것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학은 활자매체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현재도 대학 교육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활자매체 시대에 머물러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대학 도서관이다. 지금까지 대학 도서관은 그 대학의 전체 시설이나 규모를 평가하는 척도일 뿐만 아니라 그 대학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국내나 외국의 대학들을 방문할 경우, 가장 먼저 둘러 보는 장소

가 바로 도서관이었다. 그리고 그 곳에 보유된 장서의 수나 관리 상황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그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어떠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학마다 경쟁적으로 그 대학의 얼굴인 도서관을 웅장하게 세우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새로운 장서를 보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왔다. 그렇지만 작금의 변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현재의 대학 도서관이 박물관으로 변하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미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는 장서를 보관하는 기존의 도서관과 오디오 및 비디오 매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시청각 매체실을 결합하여 모든 자료를 멀티미디어로 통합 관리하는 전자 도서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대학들도 앞다투어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곧 교수의 연구 결과 및 강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개인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되고, 필요한 경우에 전자 도서관의 통신망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전자 도서관의 출현은 몇 세기에 걸친 활자매체 시대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서곡에 불과하다. 최근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을 포함한 PC 통신 이용자들의 증가에 힘입어,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원격 교육'이라든가 '가상 대학(Virtual University)' 등의 새로운

단어가 심심치 않게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고, 실제로도 국내의 몇몇 대학에서는 이미 실험적으로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 보기로서, 필자의 전공인 사회학 분야에서는 1996년 1학기에 전국 5개 대학의 교수들이 합동으로 '사회학 개론' 과목을 천리안을 통해 '전국대학연합수업'이라고 이름붙인 가상수업의 형태로 실시하였다. 그 진행 방식을 보자면, 교수의 강의가 매주 컴퓨터 통신의 가상 강의실 전자 칠판 난에 올려지면, 그것을 학생들이 읽고 강의의 말미에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여 보고서 난에 올리고, 다시 그 과제를 교수와 학생들이 서로 비교해 보고 논평을 교환하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미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미국 '서부 고등교육 위원회'에서 콜로라도 대학 중심의 '가상대학'을 시작한다고 한다. 미국 서부지역 10개 주가 함께 8만 명을 정원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인터넷과 통신위성을 이용, 기존의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던 수업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대학에 가지 않고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가상 대학이 본격화되면 기존 대학 교육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별도의 강의실, 연구실들의 설비와 교수진을 확보할 필요없이 학생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질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대학'이 아직은 먼나라 이야기처럼 생소하게 들리는 사람도 이미

그 예비 단계인 학습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교재나 강의 내용이 디스켓에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기능을 첨가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고안된 학습용 소프트웨어, 즉 코스웨어(courseware)가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용도의 학습용 소프트웨어가 교육 상품으로 개발되어 신문 광고 등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이러한 기술 혁신들은 기업의 사무 자동화처럼 학교의 학습 자동화가 실현될 날이 조만간 도래하고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 기업의 사무 자동화가 사무실에서 서류와 펜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만을 사용해서 서류작성, 결재, 저장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면, 학교의 학습 자동화는 책, 노트, 책가방이 필요없는 새로운 교육 환경의 탄생을 의미한다. 학습 자동화가 실현되면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이 컴퓨터에 입력되고, 또한 학생 개개인마다 노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컴퓨터 내에 마련된다. 그리고 수업은 학생 각자의 컴퓨터가 교수 컴퓨터와 상호응답하면서 진행된다.

어떤 미래학자는 21세기에 없어질 것 중의 하나로 서슴지 않고 대학을 꼽고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기본으로 인터넷을 통해 교육 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가상대학이 보편화된다면, 수천 명의 학생을 한 곳에서 교육시키는 현재의 넓은 대학 캠퍼

스라든가 먼지를 뒤집어 쓴 수만 권의 장서를 한 곳에 보관하는 웅장한 대학 도서관은 사실상 별로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활자매체 시대를 살아 온 교수들 역시 곧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 글을 쓰는 필자 자신도 활자매체 시대의 교육을 받았고 여전히 컴퓨터보다는 책 읽기를 선호한다.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도 강의 노트를 들고 들어가서 칠판에 중요한 요점을 적어 가면서 강의를 한다. 그리고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말초적인 데만 익숙한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력 부족에 대해 개탄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직접·간접으로 변화하는 교육 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거나, 앞서 말한 경험담에서처럼 영상매체가 가진 그 나름대로의 교육 효과를 목격하다 보면, 기존의 교육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고수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된다.

미래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천연 자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진 기술과 새로운 정보 습득력에 따라 국가의 수준이 결정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것은 비단 국가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다. 개인도 그들이 보유한 정보 습득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컴퓨터와 디지털 혁명,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대중화는 현재의 산업사회의 사고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회를 열어 놓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사회적 변화는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시대적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의 도래는 그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필자도 정보화의 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현재의 사회 변화 추세를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음도 엄연한 현실이다.

미래는 맞이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즉, 미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의 등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걸맞은 새로운 정보 교육 시스템 개발과 활용을 모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건의 변화들이 가져다 줄 또다른 폐해들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균형잡힌 자세가 현재 대학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일 것이다. ■

---

이윤희/이화여대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덴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강사를 거쳐 현재 인천대 국민윤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역서로 『현대사회 이론의 흐름』, 『포스트 모더니티』 등이 있고, "정보사회에서의 통제양식의 변화", "한국의 현대 사회학 이론 50년: 진단과 전망", "역사운동의 발생과정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